

광주박물관 세계 100대 뮤지엄 등재

국립광주박물관이 세계 100대 뮤지엄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에 따르면 국립광주박물관이 최근 영국 아트 뉴스페이퍼가 선정한 '2012년 세계 100대 뮤지엄' 100위에 선정됐다. 지난 1978년 개관 이후 최초다.

영국 아트 뉴스페이퍼 관광객 분석 100위 선정

아트 뉴스페이퍼는 국제적인 권위와 정보력을 가진 문화예술 소식지로 매년 4월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년도 총 입장객 수와, 전시 1일 관람객 수를 분석해 100위 50만명을 넘어야만 소식지에 등재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65만 5061명을 달성해 올해 10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2위(지난해 9위)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기록됐으며, 국립민속박물관(15위·지난해 16위) 등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전체 1위는 972만명이 다녀간 루브르박물관이 차지했으며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영 박물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이 뒤를 이었다.

1일 최대 관람객 수로 평가하는 가장 인기있었던 전시 순위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 기획특별전 '외규장각 의궤'(지난해 4월24일~6월24일)가 국내 2위, 아시아권 15위, 전 세계 154위를 기록했다. 외규장각 의궤는 1일 최대 2241명, 전시기간 12만 1673명이 다녀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록 아래 흐르는 선율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 58회 호남예술제에 참가한 전북 고창여자중학교 현악부 학생들이 오월의 신록 아래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계엄군 발포·사상자 규모·유네스코 등재 사실 빠져

5·18 부실기술 역사교과서 많다

역사적 진실 명백히 밝혀야 왜곡 차단

대부분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계엄군의 발포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상자 규모가 기술된 교과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5·18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그 역사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해자 민주당 의원(서구갑)은 21일 "현재 출간되고 있는 17

종의 교과서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배경으로 '병력을 동원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 반대와 계엄 해제 요구'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폭력적 진압' 정도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실제로 계엄군의 발포를 명시한 교과서는 5종에 불과했고 당시 사상자와 부상자의 현황을 밝힌 교과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과서는 사상자 발생 등에 대해 이에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언론 통제와 광주 진입 차

단으로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왜곡됐다는 점을 밝힌 교과서는 4종에 불과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5·18 기념재단)를 공개한 교과서는 6종에 그쳤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조차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으면서 5·18 정신의 고립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왜곡, 폄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을 보다 정확하고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교육

부의 교과서 검정 지침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과 6·10 항쟁처럼 제대로 된 역사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5·18 기념재단이 발행한 '5·18 민주화운동 참고용 교과서'의 경우, 광주시, 전남도, 경기도 교육청에 서만 요청해 각 일선 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다른 교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해자 의원은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왜곡과 폄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왜곡과 폄하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인재를 잡아라

새누리·민주 위원회 구성 영입 경쟁 본격화 광주·전남 안철수 사단 합류 인사·폭 주목

여야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외부 인력 영입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18일 광주에서 독자세력화를 위한 '인재 기준'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작업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30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만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해,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는 중앙당에서 관여하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만도 300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후보군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선대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800여개 조직의 지지선언을 끌어낸 대표적인 '조직공'인 홍문종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발탁해 양대 선거의 총책을 맡겼다. 또 국회의원과 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인재영입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거쳐 공식적인 '인재 풀' 확대 창구로 삼을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김영환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출해 인재영입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지만, 안철수 진영의 독자세력화와 맞물려 인재

영입 경쟁은 야권에서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 측이 호남권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할 경우에 대비한 고민도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야권 텃밭인 광주를 중심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도 상존해 안 의원의 측에 관심을 보이는 인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 측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새 정치'를 함께 할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며 인재영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립 5·18 묘지에서 '광주선언'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총원'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혁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분야별 '정책 스타' 등을 영입 기준으로 내놓았다. 안 의원 역시 지난 1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정치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가득큰 정의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람 등의 인재영입 기준을 내걸고 직접 '인물 찾기'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

5월단체 5·18왜곡 네티즌 고소키로

5월 관련단체가 최근 언론·인터넷을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글·사진을 보고 이를 인터넷 네티즌과 이를 유포한 이들을 고소키로 했다. 21일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유족회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등에 5·18 민중항쟁 당시 희생자들을 '홍이'로 표현한 글·사진을 게재한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키로 했다. /이종환기자 golee@kwangju.co.kr

제3회 곡성
세계 장미축제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2013. 5. 24(금) ~ 6. 2(일) / 10일간

●장소 : 섬진강기차마을

향기, 사랑, 그리고 꿈

천만송이 세계 명품장미,
그 향기 속으로...

곡성군
GOKSEONG COUNTY